



휘영靑! 남광주시장의 밤 밝힌다



청년이 미래다

〈10〉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청년 상인들

‘남광주 불초밥’ 전진희 대표

시장표 재료로 최고의 맛
소고기 불초밥 입소문
야시장 필수 방문 코스



‘남광주 야닭’ 김진아 대표

닭 마니아의 수제 닭꼬치
흔한 아이템 걱정 기우였네
상인간 가교역할 하고파



‘라면땅치즈핫도그’ 추승현 대표

야시장 청년상인들의 형님
전통시장 활력 찾기 앞장
젊은이들의 열정 만나세요



“활기 넘치거나, 먹을거리 손에 들고... 이게 전통시장 아니겠어.”
지난 24일 밤 광주시 동구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에서 만난 주부 최영희(여·57)씨는 “아들 같은 애들이 매대를 차리고 장사하는 것이 짝 하기는 하지만 열정 넘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평소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다는 그는 “이 곳 시장이 밤에는 적막했는데 매주 금·토일 야시장이 열리면서 활기를 찾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고민하다가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해 보니까 적성에도 맞고 수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해서 이런 돈 벌기 힘들죠. 순천에도 가게를 냈는데 2~3년 안에 내 힘으로 장업하는 게 목표예요.”

행정학과를 나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철판아이스크림 장사에 도전했다는 ‘역전 아이스’의 방백두(27) 대표는 “취업난이라는 여쩔 수 없는 상황에 선택한 일이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여m 떨어진 곳의 ‘형남육회’도 남도만의 특별한 먹거리로 손님을 불러 모았다. 이동판매대 공모를 보고 2차에 걸친 실기시험까지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박응모(30) 대표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아버지를 따라 직접 나선 경우. 박 대표는 “식육점을 운영하는 아버지께 재료도 받고 장사하는 법도 배우고 있다”며 “화장실 등 주변환경을 개선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야시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이동판매대의 음식들은 시장 구경하며 먹는 하룻밤 간식거리로 모르겠지만 ‘제대로’ 감증을 거친 상품들이다. 애초 먹을거리 중심으로 특화해 상인들을 모집하고 음식만들기 실기평가를 통해 선발한만큼 정말 맛있고 특색있는 음식들만 모았다.

야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꼭 찾는다는 ‘남광주 불초밥’도 그 중의 하나다. 소고기로 만든 초밥을 팔고 있는 전진희(여·41) 대표는 친동생과 함께 소고기 초밥을 선보였다. 남편인 공승호(34)씨도 ‘삼겹살 김밥’을 메뉴로 이동판매대를 운영 중이다.

전 대표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불초밥을 아이템으로 냈는데 입소문을 타고 많이 찾아 주셔서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근 대인시장에서 닭과 강정을 파는 어머니를 돕다가 수제 닭꼬치 이동판매대 ‘남광주 야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진아(여·37) 대표는 “대중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닭을 좋아했고, 다루기 쉬운 아이템으로 택했는데 많이들 좋아해주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년상인들 사이에서 총무를 맡고 있다는 그는 “기존 상인과 청년들이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며 “청년상인들이 먼저 다가가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더 나은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고, 상생이라는 목표와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야시장에서 ‘라면땅치즈핫도그’를 운영하며 야시장 청년상인의 형님으로 불리는 추승현(42) 대표는 “지역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 찬 바람 속에서도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며 “많이 찾아주셔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맛있게 먹어주시면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의 청년들은 기존 상인과도 격의 없이 지낸다. 따지고보면 내 부모고 형제같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설 때 시장 상인들의 장사를 위해 협의해서 야시장을 쉬게도 이 때문이다.

이동판매대를 앞에 두고 가게를 하는 한 상인은 “야시장이 운영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 젊은층도 많이 찾고 있다”며 “재료도 팔고 손님도 끌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칭찬했다.

한편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에는 남광주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동판매대 30팀과 푸드트럭 10팀 중 75%가 청년상인으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역전 아이스’ 방백두 대표

공무원 대신 선택한 길
미래 위한 투자란 맘으로
젊어 고생 사서도 합니다



‘형남육회’ 박응모 대표

아버지 가게서 재료 공수
장사하는 법 배우는 중
다시 찾고 싶은 야시장 되길



1960년 남도 해산물·채소 집결...시장 형성 기차 떠난 자리 새벽시장·수산물특화...야시장 발판

남광주시장이 형성된 것은 1960년 초다. 남광주역의 철길을 따라 전남 고흥·여수·별교 등지에서 생선·낙지·꼬막 등 풍부한 해산물이 올라오고, 광주 주변 시군에서 푸성귀 보파리를 머리에 올린 상인들이 남광주역을 통해 모여들어 시장을 형성했다. 1970년대부터는 열차운행이 증가하고 광주가 성장함에 따라 시장이 더욱 커져 광주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 2000년 철도가 이설되면서 남광주역사가 폐지되고 주변 도심 공동화 등으로 사람들이 동구를 떠나면서 시장의 상권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후 남광주역의 추억은 ‘기차 도서관’, 철길에 조성한 ‘푸른길 공원’으로 되살아났지만 시장의 쇠퇴를 되돌릴 길은 없었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전통시장을 살리고, 공동화된 도시를 살릴 방안을 고민하다 남광주시장만의 뛰어난 접근성과 차별화된 콘텐츠에 주목했다. 지하철이 새롭게 개통됐고 순환도로가 옆으로 지나는 접근성과 7.9km 푸른길과 광주를 관통하는 광주전길이 연결되는 지리적 장점이 주목받았다.

역사적 추억과 전통성을 간직한 새벽시장·수산물특화시장으로서의 타 시장과의 차별성도 야시장 추진의 기본 토대가 됐다.

주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서 야시장이 도심 공동화 극복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 지자체는 입점 상인 90%의 동의서를 받아 국·시비 10억원 지원을 따내 야시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의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Hye Eun Lee
2017 Dinner Show

